

2018 겨울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 베트남

다낭 희망마을고아원/두이탄대학교
(2019.01.06~2019.01.17)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김*재 (영어영문학)

처음에는 해외봉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고 단순히 봉사를 해외에서 해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이며, 나와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과 함께 문화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 공고를 보고 평소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을 좋아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에서 교육봉사를 진행해보았던 나에게 알맞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준비과정이 학기 중에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기와 병행하는 과정에서 시험기간과 겹치는 등 힘든 점이 있었다. 또, 매주 아침 8시에 모여서 다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기획팀장으로 활동해서 특히 초반부에 일이 많았는데, 수업안을 짜내는 것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일이었다. 기획팀원들과의 의논 후에 나름 괜찮다고 생각한 아이디어가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거절 당하는 일이 잦았고 기획안까지 다 써낸 후에 뒤집히는 경우도 허다했다. 첫 번째 전체 기획안 발표 시간에는 준비한 기획안은 다 발표하지도 못한 채로 무려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동안 서있는 채로 피드백을 받은 경험도 있었다. 방학 때는 무려 2주에 가까운 시간동안 매일 아침 10시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수업 시연을 한 후 저녁을 먹고도 한참 남아있다가 해산했다. 이처럼 해외로 나가서 하는 봉사활동 자체와 그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해외봉사를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학기중에는 물론이고 방학 때도 나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막상 봉사를 다녀오니 분명히 보람이 있었다. 희망마을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들은 아직도 눈에 선명하다. 맨 처음 고아원에 도착해서 고아원의 원장님을 만났던 날부터 우리를 맞이하던 아이가 있었다. 우리에게 수어로 반갑게 인사하며 너무 좋아서 방방 뛰던 아이였는데, 첫 날 고학년 수업에 들어가니 그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강당에서 운동회를 하던 날도, 많은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않고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돌아다닐 때, 무대에서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나를 향해서 곧게 앉아서 나와 눈을 마주쳐주었는데, 그 때의 감동은 이루 설명할 수가 없다. 수업하는 내내 느꼈던 것은, 그 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아이들이 외국인 선생님의 관심을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 자신의 이름표를 직접 만드는 활동에서는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선생님을 톡톡 쳐서 불러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왠지 찡했다. 또,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고 획 돌아서던 친구도, 자신이 만든 작품을 칭찬해주자 조금씩 입가에 미소를 띠며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기뻐했다. 총명한 친구를 보면서, 이 아이가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받는 정도의 교육만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우리 이화봉사단이 떠나던 날, 모든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우리가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해주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인형, 팔찌, 화장품 등을 선생님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나의 손에 화장품을 쥐어주는 아이에게 "정말 이거 선생님 주는거야?"라고 말하자 해맑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어린 아이들에게, 특히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소지품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더욱 고마웠다. 짧은 시간동안 나도 아이들에게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생각

보다 아이들이 우리를 더 따르고 좋아해주었던 것 같아서 헤어지면서 마음이 아팠다. 국내였다면 주기적으로 찾아갔을 만큼 해외봉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 이런 모든 감정은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완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감정은 분명히 앞서 내가 말했던 모든 힘들었던 점을 이겨낼 만큼 가치있기 때문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학생들에게 해외봉사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김*은 (작곡)

“음악 전공생으로서 청각장애 아동에게 하고 싶은 음악수업이 있나요?”

면접 때 이 질문을 시작으로 저의 첫 해외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다양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본 저는 청각장애 아동만을 위한 음악수업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해외봉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해외봉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여태 여러 국내봉사를 했던 것 와는 다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명의 봉사단 사람들과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매주 목요일 아침 7시30분에 모여 회의를 하고 팀장회의도 별도로 진행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매주 봉사단원들과 만나면서 수업시연과 피드백을 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힘이 됐고 ‘20명이 어떻게 다 친해지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친해지면서 많은 좋은 사람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직이수를 따로 하지 않아서 교안작성, 수업준비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수업을 온전히 맡으며 [쿠타]수업의 교안을 작성하고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면서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음악에 맞춰서 연주하는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 마지막 공연 날에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을지 많이 걱정도 했습니다. 수업 당일 날 설렘과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선 순간 수업을 위해 외웠던 대사는 온데간데 없이 준비했던 대사와 활동을 줄이고 연습하는 시간을 늘리는 등 정말 ‘유동적’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 보다 아이들은 너무나 잘 따라와 줬고 음악이 잘 들리진 않지만 저와 각 보조 선생님들의 동작을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따라하려는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너가 최고라는 동작을 하면 해맑게 웃던 아이의 모습, 서로 관심 받고 칭찬받으려던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모습, 어떻게든 수어로 더 말을 걸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은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육봉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교육봉사가 끝난 벽화봉사날(쿠타 수업 때 사용했던 컵을 사용해서 페인트칠을 했는데 한 아이가 여분으로 남았던 컵을 가지고 갔었다)여분의 컵을 한 아이가 들고 가서 운동장 가운데서 쿠타 연습을 하던 모습입니다. 짧은 수업시간이었지만 배운걸 하나하나 기억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업시간 때 더 많은 것을 알려줄걸, 더 흥미로운 수업을 준비할 걸’ 이라는 생각과 그 수업을 기억해주는 아이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한 아이가 저에게 감사하다는 수어와 함께 자신이 갖고 있던 인형을 줬을 때입니다. 교육봉사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고학년 반을 정리하던 중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고맙다는 수어를 하며 조그마한 곰인형을 줬습니다. 그 나이대의 아이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선물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무언가에 쿵 하고 맞은 것처럼 저는 그 인형을 받고 한동안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준 것 보다 저에게 준 관심과 마음이 너무 따듯하고 예뻐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준 아이 외에도 이번 교육봉사를 통해 만난 아이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온 교육봉사였습니다. 많이 알지 못하는 수어로 간단한 소통을 하고 이화봉

사단이 준비해간 수업을 진행하면서 행복해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오히려 제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무언가를 선물 받은 봉사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다낭에 있는 두이탄대학교와의 문화교류도 추가 되어서 공연 팀장을 맡은 저로써는 처음엔 큰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맡아서 전반적인 틀을 짜야했고, 공교롭게 대학교와 문화교류 마지막 날 [K-pop 공연, 문화교류 Day]여서 봉사단 전체가 K-pop 춤 외에도 인원을 나눠서 부채춤, 태권무도 해야 할 상황이라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 교육봉사를 주력으로 준비했었던 상황이라 공연의 전반적인 것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못해서 걱정이 앞섰지만 점차 정리가 되어가고 공연준비도 잘 끝내서 문화교류 마지막 날 공연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준비해 간 수업을 잘 따라와 주면서 많은 관심을 줬던 두이탄대학교 학생들에게도 많이 고맙습니다.

이번 해외봉사를 마치며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 다른 문화를 가진 대학생들과의 교류하는 즐거운 시간도 기억에 많이 남지만, '나' 자신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나 자신의 틀을 깨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등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팀장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질과 자세를 갖춰야 하고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는 누군가를 이끌고 앞에 나서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느끼면서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봉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10박 11일 동안 동고동락하며 매일 서로의 힘이 되어준 이화봉사단 단원들에게도 너무 고맙고 고생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봉사 시작부터 끝까지 탈 없이 무사히 끝낸 이화봉사단 모두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

김*희 (특수교육)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부터 느끼는 감사함>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마무리 하는 마지막 학기.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제 자신이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막연히 생각만 하던 중, 베트남 다낭의 희망마을 고아원 내 청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와 두이탄 대학교(이하 두이탄대) 학생들과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이화봉사단의 해외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 희망마을 고아원

생각보다 뜨거운 날씨였지만 아이들의 환한 웃음과 선생님들의 푸근한 미소가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첫 날은 콘센트를 연결하거나 아이들 이름을 읽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아 땀을 뻘뻘 흘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나날이 아이들과의 수업도 안정을 찾아가고, 우리 팀원들끼리 호흡도 척척 맞아갔습니다. 말이 완전히 통하지 않아도 몸짓과 표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 날엔 통역선생님의 도움 없이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턱 아래에서 다섯 손가락을 오므렸다 펼치는 동작(베트남 수어로 '고마워')을 보여주며 서로의 존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5일의 수업 동안 저희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아이들은 모두 다른 개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태권체조를 잘 따라하는 아이, 훌라후프를 잘 돌리는 아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등. 모두가 한 명 한 명 소중한 재능을 가진 것 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정확한 발음으로 소통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황금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도 아이들 성장의 속도와 기회의 횟수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격차를 줄여나가는 역할을 오늘날 해외봉사에 참여하는 우리들과 관련 기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일회적인 봉사보다는 좀 더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어떻게 베풀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날입니다.

2) 두이탄 대학교

두이탄대에서의 5일은 글로벌 시대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세대가 국경을 넘어 소통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간단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통놀이, 전통음식,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하루하루를 함께 채워나갔습니다. 그들과의 직접적 교류는 이번 년도가 처음 시행된 것이라 사전준비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문화교류에 힘써주시는 두이탄대 관계자 분들과 학생들 덕분에 즐겁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들의 진심어린 마음 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정이 가득 했습니다. 제 옆에서 수업을 함께

들었던 친구는 주격조사들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고, 뒤에 앉았던 친구는 K-pop에 관심이 많아 대부분의 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한국이란 나라를 사랑해주고, 그 곳으로부터 온 이화봉사단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준 두이탄대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앞으로도 이화여대와 두이탄대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돈독한 관계로 발전해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경 (사회복지학)

국내 교육 봉사는 이전부터 했지만, 제대로 된 해외 봉사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호기심과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 동기들도 한 번씩은 해외 봉사 다녀왔는데 나도 졸업 전에 가봐야 할 것 같은 압박감, 지난번에 지원했을 때 떨어졌는데 이번에 지원한다고 붙을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 등 이화봉사단을 지원할 때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더욱 절박했고 이번엔 꼭 붙는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지원서와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지원서와 면접을 준비하면서 사회봉사팀 홈페이지를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해외 교육봉사단의 클럽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클럽에 남겨진 이전 봉사단 책자의 교안과 소감문을 한동안 읽으며 내가 그 봉사에 다녀온 듯 설레면서 내 소감문과 이름이 실리는 상상도 했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시각에 지금은 소감문을 쓰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화봉사단은 전체적인 주제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단원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만큼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학기 중에는 7시 30분까지 학교에 와서 전체 회의를 하고, 종강했다는 기쁨도 잠시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으면서 아직 봉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 너무 지쳐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마을에 들어서서 우리를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자 걱정과 지친 마음은 물 씻기듯 사라졌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만나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과 사랑을 받을 기회가 적었을 아이들이 우리가 있는 순간들만큼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성취감이나 배움의 즐거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마지막 날 현미경으로 양파껍질을 관찰한 뒤 한 아이가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웃었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모습 하나로도 우리가 왜 해외 교육 봉사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018년은 경험, 진로 등 여러 면에 있어서 이전보다 성장하는 뜻깊은 한 해였는데 그 안에 베트남 이화봉사단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희망마을 고아원에 있는 동안 면접 때 받은 질문 하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번 교육 봉사는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수업을 하고 싶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청각장애 아동은 소리를 못 들을 뿐 여느 아동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청각장애 아동이라고 제약을 두면서 수업을 진행하기보단,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도 막상 음악 수업 준비를 하니 걱정이 되어 수업 달성도보단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중점을 두자고 마인드 컨트롤을 수없이 했습니다. 걱정이 무색하게 아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공적인 핸드벨 연주를 마쳤고, 모든 수업에서 아이들이 예상보다 더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면서 면접 당시 제 대답이 틀리지 않았음을,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이 현장에 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한 계기에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갔던 장애 영아원에서의 봉사활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며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 같아 반성도 많이 했던 시기에 다시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받은 사랑과 에너지를 더 넓은 곳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과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후 일정이었던 두이탄 대학교를 처음 들어섰을 때 있었던 현수막이 떠오릅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방문하는 것을 신경 써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2조 친구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랬지만 모든 활동에 있어서 열심히 잘 참여해준 것이 고맙습니다. 조 친구들이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사준 커피와 제 파트너 명이 준 과자, 어딜 가나 무엇을 해도 저를 챙겨주는 명을 보면서 오전에 고아원 수업 때문에 지쳐서 그들이 저에게 해준 것만큼 저도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정말 후회 없는 추억을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이후에 지금을 추억하면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따뜻해지겠지요. 봉사라는 것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봉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면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이번 이화봉사단을 통해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까다롭기 그지없는 물음표 살인마 물품팀장의 질문들과 요구사항이 부담스럽고 가끔은 짜증 났을 텐데도 군말 없이 따라줬던 단원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면 길었고, 짧으면 짧았던 3달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D

권*진 (영어영문학)

이전부터 항상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계절학기를 듣는다거나 여행을 간다던가 하는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미루어만 왔었다.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이 어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지원서를 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운 좋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봉사단원 20명 중 한 명으로 선발이 되어 너무나 기뻐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뒤로하고, 베트남으로 떠나기 훨씬 전부터 준비 과정에 돌입해야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조금은 부담이 있었다. 특히나, 해외로 봉사를 가는만큼 수업이든 물품이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즐거운 와중에도 언제나 긴장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힘든 준비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출국을 하게 되었다. 베트남에 있는 동안은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는데 돌아온 지금 생각해보면 1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첫날은 봉사 장소에 가서 환경을 살펴보고 적응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업을 진행한 첫날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꽤 당황을 했었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들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 번역을 하는 친구가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번역을 하고, 수화선생님이 베트남어를 수화로 바꾸는 2중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전에 수업세안을 고치고 또 고친 후 열심히 외웠지만, 준비했던 수업을 100% 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말은 최대한 간단히 줄이고,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우리가 진행한 모든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잘 들어주었고, 우리가 준비한 활동들도 너무나 재미있게 잘 참여해주었다. 서로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그리고 봉사활동 마지막 날, 한 아이가 자신이 아끼는 스티커를 기꺼이 내주며 손등에 붙여주었다. 자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나에게 나누어 준 아이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다. 그 스티커는 핸드폰 케이스에 예쁘게 붙여놓아 앞으로 이 케이스를 볼 때마다 희망마을에서의 행복한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다. 10일 동안 이화봉사단 단원 모두들 너무 수고 많았고, 베트남에서의 10일은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행복하기도 참 많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때에도 이화봉사단을 또 할 것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긍정의 대답을 보낼 것 같다. 함께 했던 단원들, 선생님들, 교수님, 희망마을 아이들, 두이탄대 친구들 모두 너무너무 고마웠고 평생 간직할 예쁜 추억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

이*수 (화학나노과학)

스무 살 여름, 나는 첫 해외봉사를 다녀왔다. 대학생생활에도 완벽히 적응하지 못한 때였지만 대학생생활 중 해외봉사 한번은 꼭 가봐야 하다는 생각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무작정 지원했고 결국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나의 첫 해외봉사를 다녀오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다.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전에 내가 가서 한 게 무엇일까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을 정도였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화 해외교육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자마자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봉사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의미있는 봉사를 하고 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소서와 면접에 임했다. 그래서인지 봉사단 합격통보를 받았을 때 대학 합격통보를 받은 것만큼이나 기뻐던 것 같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준비기간은 정말로 멘붕의 연속이었다. 우선 기획안을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아원 아이들의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교실 배치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가 터무니 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시간을 쪼개가며 준비한 기획안은 매번 선생님께 퇴짜맞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첫 모임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다. 봉사단에서 준비해간 수업을 듣던 한 대학생이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해봤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라고 물었다고 하셨다. 이렇듯 내가 준비한 것들이 아이들의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러한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물품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부터 베트남어와 수화를 배우고 부채춤공연 팀장을 맡아 안무를 정리하는 것까지 내겐 대부분이 처음이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되어준 건 바로 봉사단원들이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재미난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북돋아주는 단원들이 있어 내가 맡은 바를 완수할 수 있었다.

베트남 현지에서 교육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과 분명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준비기간을 누구보다 열심히 보냈고 모두가 하나되어 수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실제 봉사할 때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몸은 고됐지만 수업시간에 보이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었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이화인들을 보며 나 또한 잘해내겠노라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다. 그렇기에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쌓고 스스로가 성숙해질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함께 다녀온 봉사단원들에게 정말 고마웠고 모두가 잘해주었다고 말해주고 싶다. 앞으로도 이화봉사단 활동이 계속되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주었으면 좋겠다.

정*진 (융합콘텐츠학)

어렸을 적부터 종종 미디어를 통해 접해왔던 해외봉사 단원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낯선 타지에 도착해 설렘으로 가득한 봉사단원들의 표정, 이들을 환대하는 지역의 주민들,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갈등,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단원들, 그리고 떠나는 날이 되면 눈물을 흘리던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주고 온 것 보다 받은 것이 더 크다는 소감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너무나 교과서 같은 전개와 결말이었기 때문인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만 느껴졌고 평소 스스로가 이타적인 사람이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해외봉사활동을 제가 평생 겪지 않을 미지의 무언가로 여겨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2018년 이화봉사단원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은 무모하지만 완벽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화봉사단에 지원하던 시기의 저는 바쁜 일상에 지쳐 여행에 대한 열망, 기존의 제 모습과 완벽하게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제게 이화봉사단 베트남 파견의 기회는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지였고 별다른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 저의 선택은 무식하고 용감했습니다. 이 활동이 얼마나 막중하고도 가슴 벅찬 일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지원을 하는 것에 망설였을 텐데, 아동, 청각장애, 교육봉사,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저는 깊은 고민의 과정도 없이 곧장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화봉사단원이 구성된 후 학기 중과 방학을 걸쳐 진행된 봉사활동의 준비 과정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봉사준비 과정에서의 저는 그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단원이 아니었습니다. 별 고민 없이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지만 막상 활동을 시작해보니 봉사단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일절의 지식이 없는 스스로의 모습에 알게 모르게 심적으로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의 저는 앞장서서 의견을 내는 것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이화봉사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저 시키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수업 준비였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 수업인지, 또 나쁜 수업인지 판단을 하는 것조차 미숙했고, 그저 피해만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다른 친구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해왔던 몇 개월간의 노력들은 현지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돌발 상황을 종종 마주했습니다. 예상보다 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통역을 수화로 재전달하는 과정에 계산했던 것보다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덕분에 준비해갔던 수업의 대본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수업이 반복했던 시연의 경험 덕분에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쉽게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했는데도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우리에게 많은 애정을 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지원한 활동이었는데 정말로 아이들보다 제가 더 많은 것을 받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생각도 잊은 채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다보니, 떠나기 전에는 길게만 느껴졌던 12일이 빠르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희망마을 고아원의 벽면마다 가득 채워진 다른 봉사단체들의 벽화를 떠올려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곳 방문했을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스쳐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한국에서 찾아오는 언니 혹은 누나들의

존재를 반갑게 느끼는 것에 조금이라도 일조하였다면 저의 첫 해외봉사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 베트남 이화봉사단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함께한 단원들과 선생님들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임*지 (특수교육)

이화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에 지원했을 당시에, 나는 특수교육과 학생으로서 평소 청각 장애인 대상의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단원으로 선정된다면 봉사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있었다. 또 이화봉사단에서 함께 활동할 타 대학 단원들에게도 전공자로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태도로 준비 기간에 몰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뜨거웠던 탓일까. 매일매일 길어지던 준비 기간에 지치고 아직 접해보지 않은 해외봉사가 막연하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점차 과연 이게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인가? 고민이 들었다. 사범대생 4학년으로서, 동기들은 임용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는 일에 몰입하고 있어 이 일이 시간을 뺏기는 일은 아닌지 조바심이 나기도 했다.

처음에는 분명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선택한 봉사활동이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에 확신을 잃고 있었다. 더하여 수업에서 통역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준비기간 후반부야 전달받았다. 이 때문에 긴 발문을 짧게 수정하고 몸짓과 표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연습을 뒤늦게 해야 했는데 쉽지 않아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친 듯 아찔했다. 이때부터는 내가 준비한 수업을 내가 그린대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끝낸 후, 출국 당시까지도 나는 교육 봉사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 긴가민가하며 한국을 떠났다.

막상 먼 길을 달려 고아원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걱정했던 무거운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호기심 많은 얼굴로 웃으며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보니, 반갑고 이제야 봉사활동을 온 것이 실감이 나 정말 잘해야겠다는 다짐만이 들었다. 나는 3일 차 성교육 프로그램의 주교사를 맡았는데 당일이 되기까지 그 수업만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기다리던 3일 차 수업 날,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준비한대로 차분하게 수업을 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 평소에 집중력이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내 간절한 바람이 전해졌는지, 이 날에 아이들은 나의 작은 몸짓, 손짓에도 집중하며 나의 지도를 잘 따랐다. 그 덕분에 내가 그리던 수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내가 준비한 수업에는 자신의 신체를 활용한 게임이 있었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했다. 그동안 고생한 것이 큰 보람으로 돌아와 울컥하기도 했다.

아이들과의 마지막 봉사 날에는 행복나무 만들기라는 주제의 미술 수업이 있었다. 그 수업이 끝난 직후에 우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제는 너무나 정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나는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업어주며 내 방식대로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그때 문득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하고 잊고 있었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교감하며 서로의 인생에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행운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감사한 마음은 평소 일상에서 쉽게 느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나의 길고도 짧게만 느껴졌던 시원섭섭한 봉사활동이 끝났다.

해외봉사를 준비기간에는 정말 힘들었다. 어쩌면 경험해보지 못한 채, 막연히 도전해 더 큰 코를 다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선택의 기로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이 봉사활동

동을 하기로 결정할 것 같다. 4학년을 앞둔 나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귀한 시간이었지만, 정말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내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살면서 내가 힘이 들 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던 그 기억을 꺼내 보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내 인생에 귀중한 기억과 다시 보고 싶은 아이들의 얼굴을 마음 속에 새기며 희망마을고아원의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신*연 (글로벌건강간호학)

이화봉사단 베트남 교육 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교육봉사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효율적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 봉사를 신청할 때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중, 고등학교 시절을 겪으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봉사를 통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준비상태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해 옮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상호관의 조율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할 때는 봉사 대상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희망마을 고아원에서 첫 수업을 진행 할 때 과연 잘 할 수 있을 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통역도 잘 진행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 한다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이들과 친해지고 아이들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언어가 통하진 않지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수업을 마치고 칭찬 스티커를 나눠 줄 때 아이들이 좋아 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동그란 스티커 종이에 불과하지만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희망마을 고아원 아이들이 우리 봉사팀이 베트남에 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해 할 수는 없지만 5일 동안이라도 행복했던 기억을 잘 간직한다면 저는 이번 해외 봉사가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멀리 한국에서 온 언니들에게 받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 삶의 무게를 잘 버텨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이탄 대학교 문화교류를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곳곳에 달린 환영의 플랜카드를 보면서 이렇게 환영받아도 되나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문화의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로 불편한 일이 있었지만 이 또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서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살아 갑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존 하려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생각이 항상 정답일 수 없고, 지역에 따라, 속한 집단에 따라 서로가 원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강*희 (행정학)

10월, 단원들과의 첫 만남 이후로 2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학기 중 매주 목요일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나와 단원들과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수업 자료와 활동 재료에 이르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함께 준비하는 기간은 힘들기도 하였지만 점차 활동을 구체화시켜나가며 뿌듯함과 책임감도 더불어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시험기간과 종강 후에도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일정에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였습니 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처음부터 모든 걸 함께 견뎌온 봉사단원들과의 의기투합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출국날이 다가왔을 때는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하여 베트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도 설레는 마음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올라서도 담당하 는 수업의 대본과 부채춤 연습, 대학교류 프로그램과 피피티 등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서 내가 정말 준비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불연 듯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첫날은 수업이 이루어질 고아원을 둘러보고 문화교류를 할 두이탄 대학교에 정식으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희망마을 고아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많았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언뜻언뜻 보았던 아이들의 표정도 낯선 사람들에게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이탄 대학의 사람들은 서툰 한국어에도 친절하고 밝은 미소로 우리 봉사단원들을 환대해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첫 수업이 바로 제가 말았던 명찰 만들기 수업이었던 탓에 수업 전날 긴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과연 연습한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아이들의 상황과 통역 및 수화를 도와주실 분들과의 소통이 생각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실전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첫날 수업은 보조교사를 담당해준 봉사단원들과 고아원 아이들의 열정적인 협조로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서툰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의 말과 행동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열심히 표현해준 많은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고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날의 수업이후에는 비록 조금씩은 미숙하고 실수하는 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순풍에 돛을 단 듯 연이은 수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도 점차 얼굴을 익히게 되며 어떤 식으로 소통해야 하는 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아이들의 특성에 맞추어 함께 수업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전해주고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던 수업들이었지만, 막상 함께 수업을 하다 보니 쑥스러워 하면서도 자신을 진지하게 표현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을 보며 도리어 봉사와 소통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로, 봉사자로 이곳에 왔던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 하나하나를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티 없이 맑은 미소로, 비록 뜻을 알아들을 수 없음에도 손짓발짓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저학년 아이들부터 약간은 어색하고 쑥스러워 하면서도 깊은 눈망울로 수화와 몸짓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또렷이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고학년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아이들 한명 한명의 열의와 투명한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전마다 아이들과 함께 하였던 태권체조 영상을 볼 때는 신기해하면서도 어느 샌가 곧잘 찌르기와 발차기를 하며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도 봉사단원들에게 달려와 혹은 저마다 팔을 쭉 펴서 기준점을 맞춰놓고 발차기 연습을 하는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때면 절로 웃음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비누 만들기 와 나무구미기 수업 때는 아이들 각자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선생님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봉사단원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게임을 진행할 때는 맨발투혼을 불사하며 열정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한편 함께 게임을 한 친구들에 대한 배려의 모습도 보이는 아이들의 진솔하고 말간 모습을 보았을 때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끓어오르며 몽클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일정을 고아원에서 마치고 두이탄 대학에서 또래 대학생들과 함께한 활동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와 영어일지라도 서로의 말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마음만은 눈빛으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낯선 상황에서도 서로의 문화와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친숙한 공통점과 호기심어린 차이점을 하나씩 발견해가며 웃고 떠들며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 만들기 수업을 할 때 만든 음식을 먼저 권해주며 밝게 웃었던 베트남 친구의 표정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전통놀이를 배워보는 시간에 작은 제기와 직접 만들어본 소박한 딱지로도 신나게 활동하며 즐거워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담은 공연을 끝으로 헤어짐은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담아 서로에게 미소 지으며 코끝이 시큰해지면서도 기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그리고 두이탄에서의 여정이 끝나고 희망마을 고아원의 담벽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벗겨진 페인트를 칠하는 벽화봉사를 할 때는 비록 익숙하지 않은 벽화봉사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태였지만 단원들 모두 힘을 모아 끝내는 도안을 현실로 옮겨낼 수 있었습니다. 페인트의 조색과 채색, 벽의 이끼 제거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어느 샌가 단원들 한명 한명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 없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화봉사단으로 활동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10일 간의 여정이었지만 이화에서 보냈던 어느 방학보다 소중하고 값진 경험을 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봉사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마음을 담는 또 하나의 봉사로서 단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베풀고 전해주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뜨겁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뜻 깊은 1월이었습니다.

이*민 (영상디자인)

'makes your eyes beautiful; 사람들의 눈을 아름답게 만들자,' 이 문장은 저의 생각이고 목표이며 가치관이다. 항상 어떤 활동을 지원할때마다 이 문장을 저의 슬로건처럼 여기며 이를 주제로 글을 써내곤 하였다. 이번 베트남 이화봉사단도 마찬가지였다. 1학년 때 국내봉사를 다녀온 후 참석한 해단식에서 미국 미네소타로 봉사를 다녀온 선배기수의 발표와 영상이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나에게는 해외봉사라는 것이 엄청 대단한 활동으로 느껴졌고 공고가 뜬다면 바로 지원한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지원 공고가 뜨자마자 지원을 했지만 바로 탈락하고 말았다. 그 때는 아직 봉사단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에 동아리와 대외활동, 영화제 봉사, 아르바이트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 3학년 후반이 되었을 때 해외봉사는 잠시 밀어두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나 벌자고 생각했었다. 그러다 우연히 이화봉사단 베트남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고 아르바이트와 봉사, 이 두 갈림길을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끝내 제출기간에 임박해서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지원서를 제출할 때 'makes your eyes beautiful,'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두이탄 대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아름다움을 줄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 같다. 고아원 아이들에게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통해 그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봉사단으로 인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것과 두이탄 대학교 학생들은 한국을 보는 눈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적었는데 수업을 직접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촬영만 해서 그 바람을 이룰 수는 없었다.

사전준비기간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고 봉사단에 집중했고 종강을 하고 나서는 워크북 제작과 브이로그등 기록팀의 거의 모든 일에 집중을 하였다. 그리고 쉴틈없이 베트남으로 날아가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교육봉사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다행히 날씨가 좋았다. 단원들이 준비한 수업을 아이들이 잘 따라주었을 때는 사진도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고 산만한 모습을 보일 때는 아이들이 많이 움직여서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아 아쉬웠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카메라에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더 아쉬운 점은 아이들과 단원들이 어떻게든 의사소통 하는 것, 같이 어울리는 모습 등 '수업'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못 담은 것이다. 고아원에서 마지막 수업 날 단원 한명이 아이를 번쩍 안아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데 너무 예쁜 장면이라 그날 혼자 몇 번씩 돌려보았던 기억이 난다. 이런 장면이 많이 있었으면 했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카메라를 쏘스러워하기도 하고 카메라가 좋아서 나랑 눈이 마주치면 사진을 찍어달라며 포즈를 취하곤 했다.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에게 사진을 뽑아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두이탄 대학교에서는 학교 전체의 관심과 환영에 약간 놀라기도 했고 부담스러운 느낌도 들었지만 대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기에 감사하다고 느껴졌다. 나는 무거운 카메라를 항상 들고 있기도 했고 5일 동안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베트남 친구들과 얘기를 잘 못하거나 했던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잘 소통했으면 한다.

타지에서 10일간 머무르는 것은 모두에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로 출발했어도 바뀐 환경 탓에 갑자기 아픈 단원들도 있었고 나 또한 생리기간과 겹쳐 하루 종일 기어다니면서 죽을 상을 하고 촬영을 했었다. 벽화봉사도 항상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막

상 해보니 조색부터 시작해서 칠하는 방법, 물품 등등 챙길 것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그래도 지금 다녀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카메라라는 또 다른 눈으로 아이들과 단원들, 두이탄 대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소통할 수 있었다. 비록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고아원 아이들과 두이탄 대학교 학생들이 저를 항상 카메라 들던 사람이 있었다고 기억해주면 고마울 것 같다.

최*혜 (국어국문학)

첫날, 베트남으로 떠나며 느꼈던 긴장감과 기대감을 기억한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이들을 만나 나의 소임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고, 새로운 상황에 놓일 거라는 생각에 조금 설레기도 했다. 처음 고아원에 갔을 때, 내 뒤통수를 툭툭 건들고 수줍게 인사를 건네던 아이의 웃음 덕에 마음이 놓였다. 우리를, 나를 정말 환하게 반겨주어서 안도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나는 스스로 한계를 느낀 적이 많았다. 종종 아이들끼리 서로 때리고 욕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졌다. 마치 장난처럼 친구를 때리고 친구에게 욕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특히, 나는 친구사랑 수업의 주교사를 맡았던지라 이런 걸 그냥 보고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걱정되었다. 조금은 회의감도 들었다. 그래도 선생님이랍시고 교육 봉사를 왔는데, 이런 상황이 나아지는 데 내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낀 것이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의심도 들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애초에 그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았다. 그런 걸 바라는 것은 아마 봉사자로서 갖기 쉬운 욕심일 것이다. 그저 아이들이 후에 우리와 함께한 시간을 사랑받은 기억으로, 행복한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봉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대면하니 내가 아이들에게 과연 무언가를 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다. 자신감을 잃었다. 내가 주교사로 친구사랑 수업을 할 때도 아이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됐다.

지나고 나서 짧은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 무력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의심될수록 더욱더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했어야 했나 싶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 한 번 더 안아볼걸, 손잡아볼걸, 후회가 남는다. 그게 아마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아이들과 헤어지고 나서야 할 수 있게 된 것이 슬프다. 조금 더 빨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의사소통의 문제도 꽤 크게 다가왔다. 나는 청각장애인과 이렇게 오랜 시간 대면해본 적이 없었다. 내 좁은 세상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그동안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들만 만나온 것과 다름없었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과 제대로 소통해본 경험이 없어 준비 기간부터 걱정이 많았고, 실제로 청각장애 아동들과의 소통은 결코 쉽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수어로 최선을 다해 대화를 시도하는 아이들의 말에 나는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적이 많았다. 대강 무슨 말을 하는 것이겠거니 짐작해서 나도 손짓, 발짓 동원하여 나름대로는 대답해보려 했지만,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보기엔 어렵다. 내가 아이들이 전달코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이들 말을 온전히 알아듣고 내 뜻을 전달해주지 못해 미안했다. 그래도 내가 몸짓으로 대답을 하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웃어주곤 했다. 내가 의도한 바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조금은 혼란스러웠을 상황에서 아이들은 내 대답에 집중해주고, 자신들의 의견을 나에게 전달해주고자 했다. 참 고마운 일이었다.

원래 사랑을 퍼주는 것에 조금 인색한 편이다. 이런 성격 탓에 아이들에게 더 많이 사랑과 애정을 표현해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내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

다. 더 많은 아이를 안아주고 손잡아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고아원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순간부터 이 생각에 혼자 마음이 무거웠다. 아이들은 나를 보고 웃어줬다. 보면 기분 좋아지는 웃음이었다. 나까지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이었다. 이들은 참 조건 없이 내게 싱긋 웃어주고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줬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퍼줬다.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경험이 내게도 참 드문 경험이라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정말 고맙고 잊기 힘들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 후회가 많이 남는다. 이때 이렇게 해야 했는데, 하고 지나고 나서야 더 좋은 방향의 선택지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었는데도 사랑을 퍼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생각뿐이다.

두이탄대학교 사람들도 우리를 처음부터 놀라울 정도로 크게 반겨주었고, 문화 교류 활동 내내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내게 웃어주고 반응해주는 건지, 고맙고 또 동시에 괜히 미안했다. 그에 비하면 나는 조금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 것 같기도 하다. 사실 이에는 언어가 큰 역할을 했다. 영어로 유창하게 말하지는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들과 그리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노력해봤다.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고 걱정됐다. 다행히 만남이 계속될수록, 조금씩 더 다가가기 수월해졌다. 그들이 마음으로 먼저 다가와 준 것에 정말 감사하다. 문화, 언어, 환경 등 많은 것이 다른 이들과 만나 보내는 며칠은 참 특별했다.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또 마음을 나눈다는 게 뜻깊었다. 단순히 흔치 않은 경험이어서 하는 말은 아니다. 그리 쉽지는 않더라도 함께 서로를 위해 노력했다는 게 좋은 경험으로 내게 남을 것 같다.

 송*주 (수학)

이화봉사단에 합격하고 난 후 출국하기 직전까지 내가 베트남에 가서 해외봉사를 하고 온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나의 첫 해외 봉사였기 때문에 실수하고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다. 또한 이번 이화봉사단은 오전에는 40명의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20여명정도의 베트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교류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작년의 활동과 달라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많이 없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팀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물품 준비, 수업 시뮬레이션, 공연준비까지 많은 것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과정을 거쳤다. 솔직히 이 많은 과정이 한 번에 몰아치니 그냥 얼른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다. 베트남으로 가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지루해하면 어떡하나 많은 걱정을 하며 갔다. 이러한 근심을 가지고 갔던 것에 무색하게 현지 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해주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우리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에 모두 최선을 다해 참여해주었고 중간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해맑게 웃어주는 모습에 울컥하던 순간도 있었다.

각자 쓰는 언어가 달라서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우리와 감정을 나누고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손짓만 해도 알아들었고 우리가 곤란해 하는 눈빛만 보아도 그들끼리 수업분위기를 조성하며 우리에게 집중해주었다. 긴장했던 첫 수업과 다르게 나중에는 점점 나도 아이들과 동화되어 같이 즐기고 같이 웃으며 수업을 듣고 있었다. 오히려 돌아가기 전까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깝게 느껴졌다. 고아원에서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에 서로의 행복했던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수업을 했는데 한 아이가 내가 매고 있는 명찰을 유심히 보더니 나의 한국어 이름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종이에 적었다. 나의 이름을 적으며 해맑게 웃어주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느껴도 되나 생각되고 몽클해지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던 것 같다. 봉사를 하러 갔지만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내가 그들에게 주고 온 것보다 받고 온 것이 더 많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순수했던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무 계산 없이 웃은 날이 언제였는지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내가 준비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했던 감정은 그저 내가 편하고자 했던 이기적인 마음은 아니었을까 반성하게 되었다. 또한 아쉬웠던 점은 간단한 수어라도 배워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거다. 웃으면서 수화를 하는 아이들을 멍하니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나의 인생에서 큰 선물이 되어주었고 영원히 잊지 못한 순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종류의 봉사라도 계속 꾸준히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주*연(융합보건학)

봉사를 단 한 순간도 쉬어본 적 없던 저는 항상 값진 추억과 성장을 준 봉사의 감사함에 이번에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해외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봉사들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청각 장애 아동들과 한국어를 사랑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오티를 위해 찾은 다낭의 희망마을고아원은 눈이 부시도록 밝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겐 저희는 낯선 사람들 일텐데 아이들은 해맑은 미소와 반갑다는 손동작으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준비기간의 힘듦은 싹 사라지고 더욱 잘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서툰 저희들은 수많은 피드백과 회의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에게 보여준 미소와 손동작은 저희에게 피드백과 회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 주었기에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화봉사단들의 서툰에도 웃으며 기다려주던 학생들, 이름과 얼굴을 외우지 못한 저희들을 위해 워크북 배부를 도와주던 아이들, 매 수업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 쉬는 시간마다 정리를 도와주던 아이들. 제가 언급한 이 아이들은 들을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비청각장애 아동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소리로 대화하지 않고 마음으로, 손동작으로 대화 한 것 뿐입니다.

봉사를 하는 매 순간마다 서로에게 손동작으로 표현하는 감사함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감히 누구도 다 이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이 아이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고마움과 감사함은 잊지 못 할 것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대학생들 또한 소중한 추억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어를 조금 하는 저와 한국어를 많이 할 수 있는 두이탄대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 감사함이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한국어를 배워 저희와 대화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음식, 한국전통, 한국문화를 충분히 아는 학생들이지만 항상 열심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아는 것들을 저희에게 얘기하며 더 배우고 싶다는 표현도 많이 했었습니다. 베트남 k-pop의 날을 맞아 무대에서 같이 춤을 췄던 사람들은 베트남 / 한국 두 부류의 대학생이 아니라 k-pop을 사랑한 한 부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문화교류의 5일은 한국과 베트남의 큰 기둥만 가르쳐주고 돌아가기에만 충분한 기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지를 가르쳐주고 돌아가기에 부족했던 시간이라 많이 아쉬웠지만 행복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든든한 봉사단들과 사회봉사팀과 함께하는 사랑밭이 있어서 성공적으로 끝냈다. 어색했던 봉사단들과의 첫 만남부터 모두가 열심히 한 준비 기간, 다낭에서의 봉사와 문화교류 기간, 봉사단들과의 아쉬운 헤어짐 까지 매 순간이 단 한 번도 소중하다고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정 (특수교육)

열흘간의 봉사활동을 끝내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정과 베트남에서의 봉사활동을 돌이켜 보았다. 부족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던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이화봉사단이 된 것이 마냥 좋았는데 준비를 하면서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업을 구상하면서 아이들이 이 수업을 재밌어할까, 어려워하진 않을까, 유지해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기도 했고, 학생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지도 많이 생각해야 했다.

학기 중, 방학 내내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머릿속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았는데 실제로 베트남에 가니 또 달랐다. 버스를 타고 고아원에 도착한 우리를 반겨준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다. 우리를 보자마자 자기는 듣지 못한다고 온몸으로 표현한 아이도 있었고, 보청기를 쓰는 아이도 있었고, 수어를 쓰는 아이들도 있었고, 구어를 쓰는 아이도 있었다. 첫날 아이들을 만나니 그 후에 있을 수업들이 떨리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다. 수업을 실제로 하기 전까지 봉사단원들은 숙소에서 회의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원활한 통역을 위해 준비해온 말도 간단하게 바꾸기도 했다. 희망마을 고아원에 실제로 가보기 전까지는 세안을 외우고 몇 번의 수업시연을 해보면서 '진짜 정말 많이 준비해간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또 막상 실제 수업 때는 여러 상황 상 준비해간 수업을 100퍼센트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많이 외우고 반복하며 준비해갔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준비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희망마을 고아원 봉사활동 외에도 두이탄 대학교 학생들과 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실 이화봉사단에 지원하고 봉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이 문화교류가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막상 대학교에 가니 이 문화교류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건지 알게 되었다. 대학교 학생들과의 문화교류는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베트남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친구와 대화하듯이 조금 더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걱정이 컸지만 실제로는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려움은 없었다. 아이들과는 눈짓, 손짓, 그림으로, 학생들과는 영어나 한국어로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무조건 완벽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고 아이의 말을 전부 다 알아듣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 순간에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몇 달 동안 준비한 것이 뿌듯하게 느껴졌다.

한 가지 스스로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수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사 전에 기본적인 수어를 익히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봉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가 베트남 수어로 무엇인지 눈치껏 알게 되었는데, 그 뒤로 '고마워'라고 한국말로 말하는 것 대신 수어로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하니깐 아이도 수어로 답해주며 더욱 가까워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봉사나 문화교류에서의 경험 외에도 이화봉사단을 하면서 느낀 또 다른 좋은 점은 바로 19명의 이화봉사단 언니들, 친구들, 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울 점 많고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봉사를 준비할 수 있었던 지난 몇 개월은 나에게 정

말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장*정 (심리학)

작년 여름 국내 이화봉사단을 하고 이화봉사단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겨울에는 해외로 신청하여 다녀왔다. 국내는 3박 4일, 4명에서 갔다면 해외는 무려 10박 11일, 20명에서 갔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해외 봉사의 장점 두 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이 길어서 보다 많은 인원임에도 가까워질 기회도, 함께 추억을 쌓을 시간도 많다. 둘째, 단원 모두가 봉사 준비에 참여한다. 기획단이 별도로 있는 국내 봉사와 달리 해외 봉사는 20명이 수업팀 5개로 나뉘어 프로그램 기획을 다 같이 한다. 그래서 한 수업 구상에 있어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알기에 결속력이 더 좋다. 물론 해외로 가는 만큼 비행기 수화물 규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등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많지만, 그만큼 더 보람 있고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더욱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이화봉사단을 하고 얻은 교훈 중 하나는 교육 봉사를 할 때 욕심을 조금은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기획한 대로 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활동 그 자체에 뜻을 두는 것이다. 사실 직접 기획한 수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설렘, 긴장감, 기대감 등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에 적은 대로 마음을 적당히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기에 이 점을 이번 해외 봉사에서 연습하려고 스스로 이렇게 되뇌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수업을 완벽하게 진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온 거야.' 그렇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내가 주교사를 맡은 시장보기놀이 수업을 하던 중 10분 뒤쯤 아이들이 겨울옷을 배부 받으러 강당에 모여야 한다는 공지를 받았다. 시계를 확인하며 알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막상 시간이 되니 수업을 바로 중단하지 못하고 그때 하고 있었던 퀴즈 활동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아차 싶었다. 봉사 현장에서 기존 계획에 없던 일이 일어날 때 욕심을 버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번 봉사 대상은 베트남 고아원에 있는 청각장애 아동이었다. 우리 단원의 말은 한글->베트남어->베트남 수화 이렇게 두 차례의 번역을 거쳐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50분이면 실제 주어진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그래서 사실 봉사 초반에 회의감을 느끼고 한 단원에게 이렇게 털어놓기도 하였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이것은 베트남 대학생들이 하는 게 오히려 낯지 않을까?" 한국 안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각자의 나라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봉사를 다녀온 지금까지도 물음표로 남아있다. 해외봉사가 봉사자의 입장에서 국내 봉사와는 다른 매력이 있는 경험이지만 과연 봉사 수혜자의 입장에서 장점은 무엇일까? 앞으로 더 고민해보아야겠다. 아무튼 이번 봉사 대상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간 수화 합창을 할 때는 가슴이 벅찼다. 베트남 수화와 한국 수화가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의 언어인 수화로 가사를 전달할 수 있어 기뻐다. 그리고 그 수화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몇 동작을 따라하는 아이들을 보며 괜히 눈물이 내려 하였다. 국경을 넘어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소통을 할 때의 뭉클함 때문에 사람들이 해외 봉사를 꾸준히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봉사 기간에 두이탄 대학교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도 인상 깊었다. 해외여행을 가서 내 또래 현지인들을 스쳐 지나갈 때면 내 또래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

이 들었었다. 그래서 이번 문화 교류가 더 기대되었었다. 베트남 학생들은 한복을, 한국 학생들은 아오자이를 입고, 각국의 음식을 함께 요리하고 맛보고, K-POP 춤을 같이 추었다. 고아원 봉사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생생하고 즐거운 분위기였다. 서로의 나라에 다시 놀러 오면 연락하라는 말을 하며 웃으며 헤어졌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소감문을 마무리하며 봉사 준비부터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이화봉사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수업은 주교사 혼자가 아니라 보조교사들의 도움과 더불어 모두가 같이 이끌어가는 것임을 알게 해준 단원들, 몸치라서 춤과는 거리가 먼 나에게 차근차근 K-POP 춤과 태권무를 가르쳐준 단원들 모두 고맙다. 이화라는 넓은 곳에서 봉사단을 계기로 만난 인연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 인연을 이번 베트남에서의 추억과 함께 오래 간직하고 싶다. :)

김*진 (체육과학)

언제부터였는지 그리고 그 계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학창시절 나에겐 '주말마다 봉사하기'가 어느덧 일상으로 자리잡았었다. 그렇게 봉사활동에 익숙해졌기 때문인지 새로운 봉사를 시작한다는 뜻은 내겐 늘 두려움보다는 또 다른 경험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찾아왔다. 그리고 이번 베트남 해외봉사도 합격소식을 듣고서는 물론 들뜬 마음이 앞장섰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봉사는 지금까지의 마음가짐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까닭에 늘 모든 것을 확실히 준비해 가야하는 해외봉사의 특성상, 평소에 비해 같은 물품도 그리고 프로그램도 거듭해서 검토하고 준비해야했다. 물론, 집중적으로 준비하던 2주의 과정에서 유독 지칠때도 있었지만, 베트남에서 우리의수업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생각하며 그 기간을 이겨낼수 있었다.

이번에는 대학문화교류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어야 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는 체육과학부라는 전공의 특성을 살려 한국의 전통 '태권무' 무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실, 나로서도 태권도를 접해본, 경험해본 적이 많지 않아 처음에 태권무팀을 이끌어가는 것이란 매우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의견을 모아주는 팀원들 덕분에 이 또한 멋지게 끝마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었지만, 늘 우리에게 순수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이 많았던 또한 친절했던 베트남 학생들 덕분에 처음 방문한 베트남에도 좋은 첫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다시 고아원 얘기를 해보자면, 고아원 수업은 늘 발랄하고 장난기 넘치는 저학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선생님의 말에 귀기울이는 고학년 학생들과 함께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간 수업프로그램도 기억에 남지만, 그저 하나의 틈새프로그램으로 준비해간 태권체조를 좋아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선명히 기억난다.

사실, 늘 긴장되어있는 교사들에게 틈새시간이 주는 힘은 대단하다. 수업을 마치고 유일하게 잠시 긴장의 끈을 놓을수 있었던 타이밍, 즉 아이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아이들도 우리에게 더 편히 다가올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짧은 틈새속에서 아이들과 쌓은 추억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교육봉사를 더 기억에 남게 해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이 틈새 속에서 작은 실수도 분명히 존재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아쉬움으로 봉사를끝마치기보다는 또 다른 봉사의 시작점에 있어 좋은 또 다른 발판이 되어줄것이라 믿는다!

김*지 (유아교육)

처음 사회봉사팀 홈페이지에 해외 교육봉사단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접속했지만, 솔직히 나는 망설였다.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였기 때문이었다. 어딘가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진심만 통한다면, 이제껏 해왔던 교육봉사에서 느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은 걱정했던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청각장애 아동인데다가 우리와 문화가 다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교육봉사였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것이 훨씬 많았다. 계속되는 피드백과 종강 후에도 매일 아침 학교에 나가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열심히 팀원들을 보니 겨우 이런데 피곤하다고 느낀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렇게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베트남으로 떠났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너무 예뻐다. 교실은 말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던 내가 바보같았다. 아이들은 모두 그 속에서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울고 웃는 아이들을 보며 그들의 행복을 나만의 기준으로 재려고 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꼼꼼히 준비해온 수업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다. 현장에 가면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통역도, 수업 환경도 열악하니 거의 수업 내용 대부분이 그간 준비해온 것이 무색할 정도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그 시간 그 자체로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나니 교육봉사의 진정한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간단한 덧셈도 모를 수 있다. 글자를 따라 쓸 줄도 모를 수 있다. 하지만 함께 손을 잡고 따라 써보며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했지만 함께 손을 맞잡고 발맞추어 수돗가에 손을 씻으러 다녀오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개구쟁이 아이였지만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나니 아이도 마음을 열어주어 내게 먼저 다가와 안겨주었다. 진심은 쓰는 말이 달라도, 귀가 들리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통할 수 있는 만국 공통어였다.

이러한 진심의 힘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베트남의 전통음식을 맛있게 먹는 나를 보고 미소지으며 조용히 한 그릇 더 내밀던 친구의 모습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함께 K-POP 춤을 배우는 시간에는 서툰 실력으로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따라해주는 친구들이 참 고마웠다. 또 함께 윷놀이와 제기차기, 딱지치기를 할 때도 베트남 친구들은 정말 즐겁게 참여해주었다. 열심히 준비해온 것을 아는지 한국어도 아주 열정적으로 따라서 말하고 썼다. 좋은 인연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 말도 안통하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래서 이번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의미는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 같다.

최*인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고아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가 탄 버스만 보고도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주던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 순간 나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활동 내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사실 활동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잔걱정들이 많았다. 아이들이 수업 중 교실을 이탈하지는 않을지, 물건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지는 않을지, 수업내용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활동을 진행하며 그런 걱정들은 싹 사라졌고 오히려 아이들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수업 시작 전의 태권 체조부터, 수업을 마무리할 때 까지 자리에 잘 앉아 수업을 들었으며, 먼저 이해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줘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워크북 배부와 질서유지에 있어 도움을 준 모든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아이들이 본인의 것을 나눠주는 모습이었다. 어려서부터 단체생활을 해서 자신의 것은 별로 없을텐데 수업 중 받은 과자, 달란트시장에서 산 물품들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5일간 수업을 해준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본인의 팔찌나 인형 등을 주며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했을 때는 고마움과 감동이 밀려왔다.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인줄만 알았는데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아이들이었다.

이렇게도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아쉬울 뿐이다. 아침에 가자마자 수업준비를 하고 두 개의 수업을 진행한 후 빠르게 정리하고 대학교로 이동해야 했기에 아이들과 더 교류할 시간이 없었다. 수업 이외에도 아이들과 놀아주고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두이탄 대학교와의 문화교류는 아무래도 비슷한 연령의 학생들과의 활동이었고 소통이 되다보니 좀 더 수월했다.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도 많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서 이를 중점에 두고 활동을 진행했다. 외국인들과 오랜 시간동안 함께하며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좋았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베트남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었다. 대화시간이나 활동 중간중간에 서로의 문화에 대해 물어보며 궁금증을 해소하긴 했지만 이 또한 제한적이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이렇게 약 한달간의 긴 여정이 끝났다.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준비했고, 오늘의 할 일을 마쳐도 내일까지 해야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전해주고 오지는 못한 것 같지만 사랑과 마음을 전해주자는 봉사를 준비할 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마무리했다. 고아원의 아이들도, 대학생들도, 우리도 소중한 추억을 마음 깊이 간직하길.

한*은 (호크마교양대학)

이번 베트남 봉사단을 하면서 이 기회를 정말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 해외봉사였습니다. 해외봉사가 처음인지라 많은 것들이 새로웠습니다. 먼저 준비과정에서 놀랐고 이때까지 해 오신 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저는 준비과정에서 평소처럼 다른 사람이 짜주어서 하는 봉사가 아닌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직접 찾아서 해야 하는 봉사는 무척 고려할 것이 많고 철저해야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모든 수업 대본을 짜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매우 모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지에 가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칠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겪었던 어려움으로는 현지에서 통역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준비해간 대본의 5분의 1정도도 전달이 잘 안되었고 어설픈 통역을 다시 거기 계신 선생님이 수화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공부 수준 또한 다 다른 것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가르쳐야하는 지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은 더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따라오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한두 아이를 두고 수업진도를 계속 추진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따라오려고 해주었기 때문에 뿌듯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이들의 공부 상황을 잘 몰라서 수업의 난이도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교육봉사를 계속하면서 느낀 점은 수업은 최대한 간소화 한 형태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고 많은 것보다는 확실한 하나를 가르치는 방식이 아이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봉사를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아이들에게는 저희의 존재 자체가 신선한 자극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때까지 배운 것과 다른 공부를 가르쳐준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봉사를 한 것이 저희에게 더 큰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저희 봉사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지만 저희가 드린 노력과 시간 돈이 아이들에게 정말 효율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저희는 정말 배우는 것이 많았지만 현지 담당 NGO에게 저희의 돈과 시간을 기부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교육을 전달하는 것이 더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보여주기 식의 메달 전달과 달란트 시장 후 아이들과 사진 찍는 것은 아이들이 왜 메달을 받는지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사진을 찍기 위한 행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중 이 행사에 대해 모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저에 대한 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사는 저에게는 정말 값진 기회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만큼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봉사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이들이 봉사가 끝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저희에게 나누어 줄 때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분명히 소중해 보이는 장난감이나 직접 만든 팔지 같은 것들이었는데 처음에는 받아도 되는가 생각도 하였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주고 싶은 것이라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저희보다 마음 안에 더 가진 것이 많은 아이들이어서 제가 반성도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생각과 느낌을 느끼해 해준 이번 봉사기회를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하고 싶습니다.